

광주 초등학교 주변 완구 환경호르몬 범벅

소보원 29개 제품 분석...9개서 납·니켈 등 검출 19개 제조사 정보 누락·10개는 KC마크 미부착

초등학교 주변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완구와 장신구 등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돼 초등학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앞에서 쉽게 살 수 있는

29개 제품(완구·장신구·화용품 등) 시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내분비계에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완구 2개 제품에서 각각 11.31%, 13.8% 검출돼 기준치(0.1%)를 113배, 138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염화비닐수지(PVC)의 딱딱한 물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일부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스티커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할 경우 '사용주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300mg/kg)의 1.5

배에서 125배 초과 검출됐고, 다른 장신구 2개 제품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0.5 μg/cm/week)를 11배에서 2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와 어린이용 장신구, 화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후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해야 하는데 총 29개의 제품 중 3분의 1인 10개(34%) 제품이 KC마크를 미부착·허위부착하거나 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한 상태로 판매됐다.

특히 19개(66%) 제품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표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관계자는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리콜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거나 붙어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시민 바자회

광주신세계 7일까지

광주신세계가 1일 백화점 1층 광장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 바자회'를 개최한다.

1층 광장에서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는 코오롱 스포츠, 노스페이스 등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9개가 참여하며 매년 진행되는 아웃도어 대전 행사와 비교해 연중 최대규모로 펼쳐질 예정이다. 바자회 행사 수익

금 일부는 무등산 국립공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무등산을 테마로 국립공원의 주요 산길 및 탐방포인트를 소개하는 홍보 행사와 '무등산의 봄'이라는 테마로 시민 사진 공모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주신세계 유신열 총괄임원은 "지역 어머니산인 무등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신세계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봄을 앞두고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6층 아웃도어 컬럼비아 매장서 신상품 고어텍스 재킷과 활동성이 좋은 바람막이 점퍼 등을 살펴보았다. (광주신세계 제공)

무역협회, 오늘부터 기금 용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해 2013년도 무역기금 용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무역협회는 올해부터 무역기금 용자 용도를 업계 수출마케팅 분야에 집중 지원하며 용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무역기금 용자 대상기업은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 업체이며 대출기간 3년(2년 거치·연 4회 균등 분할상환)에 금리는 연 4%로 업체별 용자주한 한도는 2

억 원이다. 무역기금 용자 신청은 3월부터 9월 까지 매달 첫 번째 주 실시되며 이달 신청은 1일부터 8일까지 가능하다.

무역기금용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한 뒤, 수출실적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gj.kita.net)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943-9400~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조달청, 국유재산 일제 점검

조달청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3월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주거용 재산(관사) 전수조사 및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 예산 등을 감안, GIS기반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 1차도상조사 후 추출된 유류 의심 토지에 한해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2차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임동률기자 exian@

봄 산 알록달록 물들겠네

“한국 3G 요금 저렴·LTE는 중간”

코리아인덱스 개발협 세계 주요 10개국 비교

한국의 3세대(3G) 이동전화 요금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저렴한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회는 지난 28일 지난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음성·문자·3G 데이터) 요금을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과 비교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국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을 이용량에 따라 5가지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룹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1그룹, 많으면 5그룹으로 분류했다. 평균 그룹인 3그룹

(음성 243분·문자 78건·데이터 1252MB)에서 한국 요금은 11개국 중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4위, 시장 환율 기준 1위를 기록했다. 1위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의 순위를 의미한다. 3그룹에서 시장환율 순위는 2011년과 같지만, PPP환율 순위는 1계단 내려갔다.

코리아인덱스개발협회는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최저 요금제 구간이 신설되거나 기본료가 상승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순위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그룹에서 한국은 PPP환율기준 4위, 시장환율기준 2위를 차지했고 5그룹에서는 PPP환율기준 5위, 시장

환율기준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이용자의 요금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의 평균 대비 PPP환율 기준으로 66.8~76.4%(3그룹 76.4%), 시장환율 기준으로 42.8~49.5%(49.5%) 수준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통털에볼루션(LTE) 요금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호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미국 등 LTE를 활성화한 5개국으로 한정했다. 한국의 LTE 요금은 PPP환율 기준으로 5개국 평균 대비 64~84.9%이며 중간 이용량 기준으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협회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요금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요금 수준이 PPP환율 기준으로 평균대비 78~127.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알뜰주유소 130원 싸게 판다

석유공사, 이달부터 ㄹ당 1800원에 공급

이번 달부터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를 ㄹ당 130원 싸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저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물가관계부처 회의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달 초에 휘발유 판매가격 전국 평균이 ㄹ당 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2000원 초반대로 오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휘발유 3000만~3500만ㄹ를 알뜰주유소에 ㄹ당 1800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는 하루 70만ㄹ 선이라 42~50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주유소의 평균적인 판매 수익과 배송비 등을 고려할 때 휘발유 판매가격이 ㄹ당 2000원일 때의 공급가격은 1930원 선으로

추정된다. 실제 판매 가격은 주유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급 기준으

로 130원 정도 산 셈이다.

지경부는 소비자 판매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가 공급은 석유공사 보유분이 소진할 때까지 하며 주유소당 최대 10만ㄹ, 하루 공급량 2만ㄹ로 제한한다.

모든 알뜰주유소에 대해 저가 공급을 하되 판매량의 50% 이상을 석유공사 제품으로 총당하는 주유소와 저가 판매 실적이 우수한 주유소를 우선한다. 판매가 인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유소는 제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산담배 라이트 문구 빼기로

KT&G '에세 순' 등 4종 제품명 변경

'라이트'와 같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문구가 국산 담배에서 사라진다.

KT&G는 지난 28일 이른바 '오도 문구'가 포함된 제품 5종 가운데 4종의 제품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KT&G가 바꾼 제품은 '에세 순(純)' 계열의 3종(타르 함유량에 따른 0.1mg, 0.5mg, 1.0mg)과 '타입 라이트' 1종이다. '순'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지만 '순하다'로 오인돼 이번에 빼어날 '수(秀)로 바꿨다. '타입 라이트'는 '타입 미드(MID)'로 변경했다. 자정을 가리는 영어단어 'Midnight'에서 따왔다. '한밤중 편안한 시간에 피우는 담배'란 의미를 담았다고 KT&G 측은 설명했다.

KT&G는 '에세 라이트' 역시 조만간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담배에서 오도 문구는 사라지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



제기분협약(FTC)은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와 같이 담배의 위험성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오도 문구'를 금지하고 있다. 175개국 가운데 85개 국가가 이런 오도 문구를 금지한다. 가령 호주 담배인 '윈필드 엑스트라 마일드'는 이 규정에 따라 '윈필드 블루'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오도 문구 금지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정부 내 이견으로 아직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도 경영 차원에서 제품명 변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